광주, 문화·4차산업이 핵심…전남, 농수산·관광이 먹거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헌 관련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자리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일보=김종호 기자〉

중앙의 획일화된 법·제도로는 지방 난제 해결 못해

헌법에 지방분권 담아야 사무·재정 배분 명확해져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지상중계

한국지방신문협회가 7일 국회에서 연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축사**=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중앙의 획일화된 법과 제도로는 더 이상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역별 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87년 헌법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미나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어 한계에 달했다"며 "중앙에 집중됐던 정부의 과부하를 덜어주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줌으로써 중앙과 지방정부의 상생을 도모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가 아닌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적이고 합리적 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이번 개헌안에 반영해야 할 핵심가치"라고 말했다.

◇**발제**=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제정할 때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의 헌법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집권적 사무배분의 문제점으로 "우리 헌법은 국가의 법률에 의한 사무선점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해석해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까지도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권까지도 중앙집권적 체제로 관리하고 전국적·일률적으로 통제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토론**=▲**민주당 김영진 의원**:국가 전체의 틀을 바꾸는 분권을 헌법에서 선언하고 그에 따른 것을 법률에 규정하면 중앙부처가 재정을 배분하면서 중앙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치입법권 역시 법률이 없으면 지자체 조례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한국당 정종섭 의원**:지방분권을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행정부 조치로 할 수 있다. 법률을 고쳐서 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율을 고치는 것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인사권도 지자체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문제다. 지방분권이 개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개헌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개헌 문제로 남겨야한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현재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행정권의 사무를 위임하는 수준일 뿐 독자적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에 반드시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야 하위 법령이 만들어진다. 추상적으로 모두 법률에 위임하면 안 된다.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강화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독점을 극복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이번 개헌안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 격차해소에 대한 의무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비용부담 의무도 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 의회 문제도 중요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연구원 정책보고서 '광주전남 시·군·구 발전 구상' 주요 내용

27개 지자체 강점·약점·기회 분석

지자체별 40~70개 사업 제안

동구, 문화예술특구 인프라 조성

목포, 근대유산 관광자원화 제시

광주전남연구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 광주·전남 기초지자체의 발전 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안한 정책보고서 '광주전남 시·군·구 발전 구상'을 내놓았다. 광주 5개 자치구, 전남 22개 시·군의 지역특성 및 잠재력도 분석했다.

◇**지자체별 30페이지, 방대한 보고서**=이 보고서는 30여명의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진이 참여, 지자체별 30쪽 안팎의 내용으로 작성됐다. 27개 지자체를 모두 합하면 9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다. 우선 이들 지역 특성과 잠재력에 대한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을 하고, 기본구상을 도출해 이를 실현할 핵심과제를 지자체별로 10여개, 세부사업 40~70개씩 제안했다. 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산업, 문화, 관광, 복지, 자치, 안전, 도시재생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시·군·구 담당제를 도입하고 이어 지난 1월 광주·전남 5대 권역별로 시·군·구 기획실장 또는 기획계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정책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또 지난 2개월간 전체 연구진이 지자체별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는 내부회의를 수시로 열었다. 보고서 작성에는 모두 지난 2년 5개월이 소요됐다.

광주전남 시·군·구 발전구상은 8일 오전 광주전남연구원 홈페이지(www.gjeri.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문의 061-931-9335, 9342).

◇**광주, 문화, 도시재생, 4차 산업 등이 핵심**=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문화예술 클러스터 조성, 문화예술특구 지정에 따른 인프라 확충, 동구 대표축제 세계화 등을 핵심과제로 했다.

서구에는 민주·인권·평화 특화지구 조성, 광주 2030 미래신성장 산업밸리 조성, 상무신도심 웰니스관광 융복합형 의료관광벨트 구축 등을, 남구에는 송암산단 등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신성장동력 강화, 고품격 문화·교육도시 조성, 지역 전통문화 복원을 통한 문화적 도시환경 강화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첨단산단이 자리한 북구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융복합산업화 기반 구축,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입지 고도화 등이, 광주송정역이 자리한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 고려인·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 및 인권도시 브랜드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전남, 농수산 관련 산업 육성, 관광자원화 등이 포인트**=목포는 도시재생 및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서남권 공공의료 허브 조성 등을 핵심과제로 했다. 여수에는 해양관광·레포츠 특화지대 구축, Post Expo 남해안권 MICE(전시컨벤션산업) 선도도시 조성 등을, 순천에는 융복합 문화거점지대 조성, 순천만 자원의 글로벌화 등을, 나주에는 4차 산업혁명 지역거점 융복합산업 육성,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조성 등을 제안했다.

광양은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광양항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섬진강 생태 보전 및 복원 등을 과제로 삼았다. 담양은 인문학이 배어 있는 '정원문화도시' 육성, 곡성은 섬진강·보성강 Romantic River Project, 구례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 유산 창출, 고흥은 국립역사공원 조성, 보성은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 화순은 광주 근교권 명품 전원도시 조성, 장흥은 통합의학클러스터 구축 등이 첫 번째 과제로 언급됐다.

강진은 강진만, 생태문화관광 거점 조성, 해남은 농수산업 1조원 실현, 미래특화산업 육성, 영암은 영암 테크노폴리스 산업 구조 고도화, 무안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기반 시설 확충, 함평은 함평만 관광특구 개발, 영광은 서부해안 힐링복합벨트 조성, 장성은 삼림자원을 활용한 웰빙, 휴양형 길 중심 관광벨트 조성 등이 주요 개발사업으로 꼽혔다.

완도는 치유·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기반 구축, 진도는 서남해안 물류중심 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신안은 '섬마을 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그는 왜 조선 백자를 보고 눈물 흘렸나

김은영의 '그림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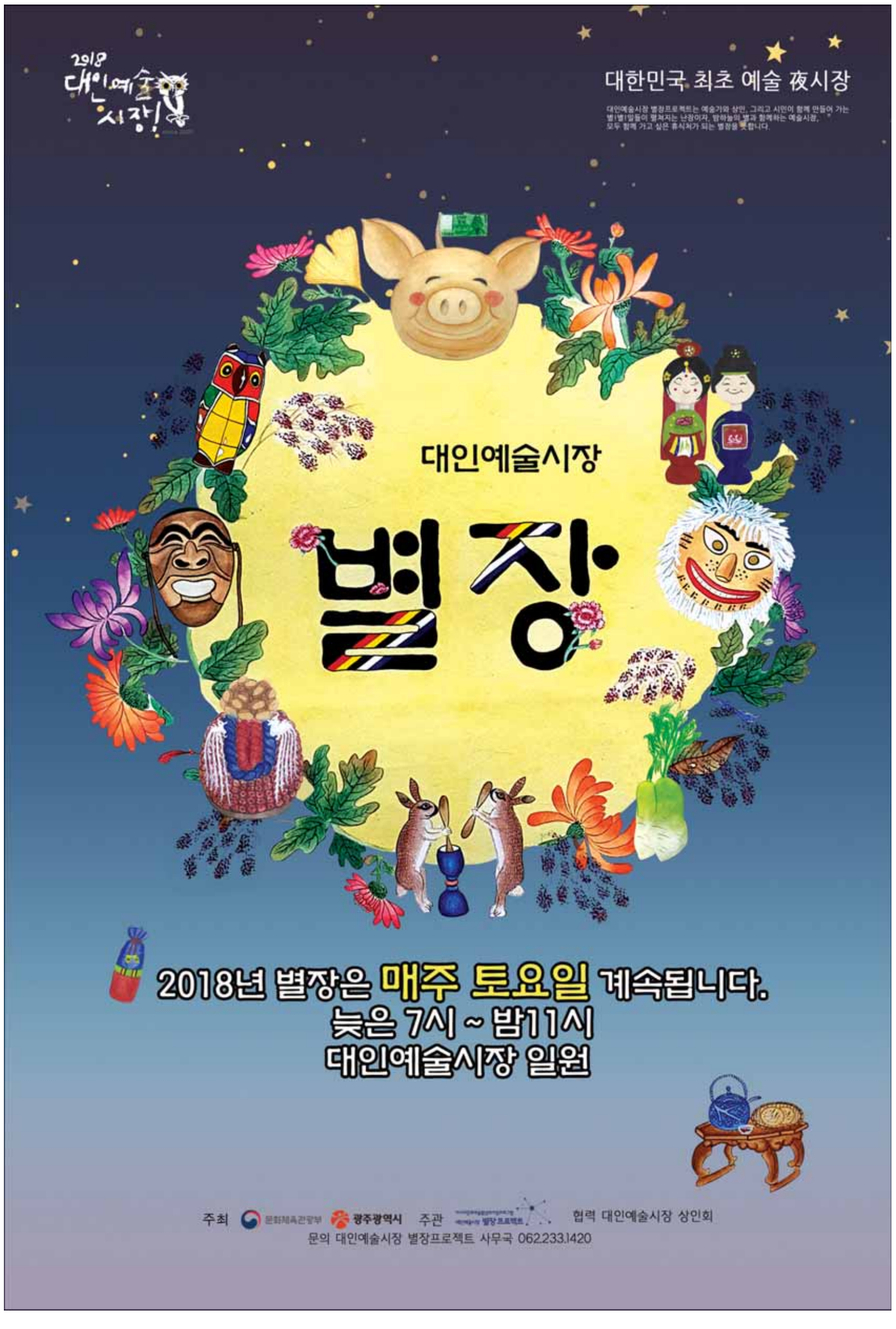
(216) 야나기 무네요시

조선시대 백자항아리

평생에 걸쳐 조선의 미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예찬했던 일본의 민예연구가 야나기 무네요시(1889~1961)는 일찍이 한국미술의 특색, 한국의 미를 규정하느라 애썼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3·1운동을 향한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 충격을 받아 '조선인을 생각한다'라는 원고를 발표했는가 하면, 일제 강점기의 상징인 조선총독부의 건축을 위해 서울의 상징적 건물인 광화문의 철거가 논의되었을 때 이에 적극 반대한 인물이기도 하다.

"예술은 민족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생각에서 조선 예술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비애의 미'로 언급했고 그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야나기는 그 비애를 감춰진 쓸쓸함, 혹은 친근감과 정감의 아름다움으로 연결하기도 했다.

특히 조선 도자기에 매혹되었던 그는 조선의 도공을 자연 그 자체로 평가하면서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고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그대로의 심정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뚜렷한 마음"에 열광했다. 백자 항아리를 보면 순백자의 위대함을 절감하기에 앞서 백자 항아리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고 감탄에 겨워 눈물 흘렸다는 야나기의 일화가 먼저 생각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백자항아리(18세기 작)는 형태가 둥글고 예쁜 모습이 전형적인 보름달 같아서 '달항아리'라 불린다. 둥글고 안정된 형태, 몸체와 조화를 이룬 다소곳한 굽과 주둥이, 유백색의 담백하고 그윽한 유약의 색감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달항아리의 넉넉하면서도 소박하고,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은 최근 현대도자는 물론 회화, 사진,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면서 변주되고 있는데, 2018평창 동계 올림픽 달항아리 성화대로 재탄생한 것은 "감동과 평화의 제전"이었다는 올림픽의 평가와 함께 세계인들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